

전주대학교 취업연계형

특장차 인력양성 사업 재선정

전주대는 6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2017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자동차(특장차)분야에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지원금 4억 원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전주대는 학생 30명에게 2년간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해외연수, 논문게재료 등 자기개발비도 제공할 계획이다.

졸업 후에는 참여 기업과 도내 기업에 100%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전주대에서는 기계시스템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 등이, 기업에서는 (주)아이씨엠씨·(주)진우 SMC, (주)카셈 등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전주대 취업연계 특성화사업 자동차 분야 재선정

전주대는 6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2017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자동차(특장차)분야에 재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특장차인력양성사업)은 전북의 4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기계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됐다. 전주대에서는 기계시스템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 등이, 기업에서는 (주)아이씨엠씨, (주)진우SMC, (주)카셈 등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금 4억 원으로 진행한다. 참여 학생 30명에게는 2년간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준다. 졸업 후에는 참여기업 및 도내 기업에 100% 취업하게 된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전주대, 취업연계형 특장차인력양성사업 선정

전주대학교는 6일 전북도가 추진하는 '2017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자동차(특장차)분야에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특장차인력양성사업)은 전북의 4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기계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됐다.

현장중심의 융복합산업 전문인력 필요에 따라 산업계와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금 4억 원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 30명에게는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우수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해외연수, 논문게재료 등 자기개발비 지원)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참여기업 및 도내 기업에 100% 취업하게 된다.

전주대에서는 기계시스템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이, 기업에서는 (주)아이씨엠씨, (주)진우 SMC, (주)카셈 등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고병권 기자(bkko@)